

고구려시기 화폐류통의 특징

장 경 식

고구려는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였을뿐아니라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였다.

고구려봉건국가의 수립과 그의 사회경제 및 문화의 발전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구려의 강대성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따라서 경제 발전에 기초한 화폐류통영역에서도 다른 봉건국가들에 비하여 앞장서나갔다.

모든 경우에 화폐는 상품류통의 매개물로 출현하며 상품류통의 발전은 생산력의 발전으로 하여 조성된 잉여생산물이 상품화되는 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고구려에서 이룩된 화폐류통의 발전수준도 잉여생산물을 상품화할수 있는 생산력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에 따라 규정되었다.

그러나 상품화폐관계는 언제나 이러저러한 상품시장을 통해서 나타나며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누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나타나는가를 규정하는 요인과 조건들에 의하여 상품화폐관계의 특성도 규정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구려에서는 쌀과 천이 일반적등가물로 고착되어갔을뿐아니라 금속화폐류통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은 고구려에서 청동으로 주조한 금속화폐가 상당히 널리 류포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도 고구려시기에 화폐로 류통되었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244~245페이지)

화폐는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의 발전과정에 자연적으로 상품계로부터 분리되어나와 일반적등가물의 작용을 하는 특수한 상품이다.

상품류통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주고 교환을 중개해주는 일반적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인 화폐는 상품생산과 교환발전의 초기에는 현물화폐가 기본을 이루면서 여기에 일부 귀금속들이 화폐로 류통되어왔다.

고구려에서는 상품화폐관계가 확대발전하는데 따라 상품거래를 매개하는 화폐류통이 발전하였다.

고구려에서 화폐류통의 발전은 화폐류통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형태상으로도 고대시기보다 한계단 높은 단계으로 지향하는데서 나타났다.

고구려시기 화폐류통의 특징은 무엇보다먼저 고구려의 영역이 넓어지고 국내지역간의 련계와 교류가 발전함에 따라 화폐상품으로 리용되는 현물화폐의 가지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고대시기에 다양한 현물화폐들의 지역적제한성은 여전히 존재하여 유목지역에서는 말과 양을 비롯한 가축과 모피가 화폐상품으로 등장하였고 해안지대에서는 조개껍질이,

농업지대에서는 곡물이나 천이 주로 화폐상품으로 등장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현물화폐류통의 제한성은 이 시기에 극복할수 없었다.

원래 현물화폐가 해당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선택될 때에는 화폐상품의 다양성을 면할수 없으나 상품시장이 전국적범위에서 연결되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지역적특성이 점차 없어지고 그 가치수가 줄어들게 된다.

고구려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절실하게 요구되고 가장 일반적인 사용가치를 가지는 물품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화폐로 선택되었는데 농산물로서의 곡물, 수공업제품으로서의 천이 바로 그러한 현물화폐였다.

물론 노예사회에서도 곡물과 천이 다양한 현물화폐들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노예사회말기에 화폐가 이 두가지 물품으로 고착되어가는 경향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고구려에 있어서는 이 두가지 현물화폐가 점차 다른 물품들을 배제하고 독점적자리를 차지하면서 전국적으로 고착되어갔으며 바로 여기에서 노예사회에 비한 봉건사회가 이룩한 화폐류통의 발전모습을 볼수 있다.

고구려에서 착취계급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복종하던 봉건적어용시전상업뿐아니라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당사자로 등장하는 장거래상업이 점차 넓어지게 된것은 화폐상품을 곡물과 천으로 고착되는 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등장한 시장에서 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사용가치로 될수 있는 상품은 금, 은이나 고급공예품, 사치품이 아니고 당장 먹고 입는 생산물인 곡물이나 천으로 될수밖에 없기때문이었다.

현물화폐가 곡물과 천으로 고착되는 과정을 다그치게 한것은 봉건국가나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로부터 조세 또는 지세로 수탈한 생산물 역시 근로인민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푸는데 가장 절실하고 보편성을 띠는 곡물과 천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이 수탈하는 기본대상도 통약된 현물화폐와 같았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고구려시기 화폐류통의 특징은 다음으로 고구려에서 곡물(곡폐)과 천(포폐)이 현물화폐로서 점차 독점적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뿐아니라 금속화폐류통에서도 그전 시기와 구별되는 높은 발전단계를 이룩한것이다.

금속은 일반적등가물로서의 사회적기능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알맞는 상품이다. 그러나 금속가운데서도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은 금속일반이 가지고있는 화폐상품으로서의 우월성을 특별히 강하게 가지고있기때문에 결국 화폐의 역할은 귀금속에 고착되는것이다.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은 질이 고르고 분할하기 쉬우며 같은 부피와 적은 중량에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녹이 쓸지 않고 쉽게 변질되지 않아 오래 보관할수 있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우점을 많이 가지고있으므로 그 어느 금속보다도 화폐로서 가장 적당한것이다. 때문에 상품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귀금속이 화폐로 등장하게 되는것은 화폐 자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으로 되는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청동화폐들이 국내와 대외무역거래에서 리용되었다.

고구려에서는 금과 은, 동을 비롯한 금속화폐들이 적지 않게 류통되었다.

고구려에서 일찍부터 금속화폐가 적지 않게 류통되었다는것은 우선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였던 길림성 통화현 즈안에서 고구려시기에 류통된것으로 인정되는 금속화폐가 드러난 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다.

고고학적자료에 의하면 좁은 마선구 큰 무덤근처의 고구려돌각담무덤에서는 중국 한나라의 화폐들과 함께 일화전과 명화전 등 두 종류의 화폐가 발견되었다.

이 화폐들은 한나라의 화폐들과는 달리 돈의 변두리의 테두리가 둘러져있지 않았을 뿐아니라 돈복판에 뚫린 네모진 구멍에도 테두리가 둘러있지 않은 등 그 형태와 주조수법에서도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명화전, 일화전이 이미 고조선에서 쓰이던 화폐들이 고구려에 그대로 계승되어 화폐로 통용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 금속화폐가 류통되었다는것은 또한 고구려건국초기에 그에 통합된 동옥저에서 글자가 없는 무문전이 류통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서도 짐작할수 있다.

동옥저에서는 일찍부터 금속화폐가 광범히 류통되고있었다. 이로부터 동옥저사람들의 혼인관습에까지 화폐관계가 침투되어 돈에 의한 매매혼이 하나의 풍속으로까지 형성되게 되었다.

A.D. 3세기 초중엽의 위나라의 어환이 저술한 《위략》 잔편이 전하는데 의하면 동옥저에서는 혼인관계에서 《너자나이가 10살쯤 되면 서로 언약을 맺고 신랑집에서 너자를 데려다 길러 며느리로 삼았는데 성년이 되면 너자집에서는 다시 제집으로 데려갔다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돈을 신랑측으로부터 받은 다음에야 딸을 되돌려보내는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있었다.

이처럼 동옥저의 매매혼관습에 화폐관계가 침투되게 된것은 당시 동옥저에서 금속화폐의 류통이 광범히 진행되고있었다는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동옥저에서 류통되고있던 화폐는 12세기 송나라의 홍준이 력대의 화폐를 수집하여 그림으로 도해한 《천지》에서 《동옥저국의 돈에는 글자가 씌여져있지 않다.》고 전하듯이 글자가 없는 무문전이였다.

당시 동옥저에서 광범히 류통되고있었던 무문전은 고구려사람들사이에서 일찍부터 쓰이던 돈이 같은 겨레인 동옥저사람들사이에 전파되어 무문전의 형태로 나타난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당시 가장 발전하였던 고구려에 의하여 동옥저가 통합되었다는것을 고려할 때 문화적으로 뒤진 처지에 있었던 동옥저사람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그 화폐의 형태만을 본딴 무문전을 만들어 화폐로 류통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해동역사》 권25 식화지 전화조)

이렇게 고구려에서는 고조선이래의 일화전과 명화전, 동옥저계의 무문전 등 여러가지 종류의 금속화폐가 적지 않게 류통되었다. 국내에서 류통되던 그러한 화폐들의 일부는 고구려와 동옥저가 일찍부터 후위 등 중세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접촉과 무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무역결제수단으로 대륙에 흘러들어갔다.

고구려는 대륙의 나라들과 대외적접촉과 무역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통전》 등의 동옥저전에 의하면 동옥저도 중세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일찍부터 외교적접촉과 무역을 활발하게 벌리고있었다.

고구려시기에서는 금, 은 등 귀금속이 칭량화폐의 형태로 적지 않게 류통되었다. 그것은 고구려에서 토지, 노비, 말, 소 기타 가장집물들이 금을 매개로 하여 매매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온달이 그 나라 평강왕의 딸 평강공주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되어 공주가 가지고 온 여러개의 금팔찌를 장에 내다 팔고 토지와 노비, 말과 소, 기타 가정세간살이를 사들여 살림을 알뜰히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는 역사적사실이 전해지고있다.

또 은이 화폐로도 리용되었다는것은 은을 캐서 국용(국가비용)으로 썼다는 《한원》에서의 기록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고구려전기에도 금속화폐가 있었다는것은 고구려의 혼인풍습에 처가에서 사위집을 마련해두고 사위를 숙박시키는데 그옆에는 전백(돈과 비단)을 쌓아두었으며 아이를 낳아서 온 다음에 안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삼국지》 권30 고구려전)

여기에 보이는 전백은 백이 비단—화폐를 대표하는것만큼 전도 화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 기록을 통하여 고구려에서 장이 서고 귀금속이 화폐로 류통되어 일용필수품만이 아니라 말, 소, 등이 매매되고 토지와 노비가 금속화폐를 매개로 하여 매매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고구려에서 화폐류통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침투되고있었다. 그 과정에 지어는 국왕의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들까지 화폐에 의하여 매매되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414년에 고구려에서는 광개토왕의 룡이 만들어지자 룡을 지키는 수묘인들을 배치하면서 《금후에는 수묘인들을 다시는 서로 팔수 없으며 비록 부유한자들이라 하여도 수묘인들을 살수 없고 만일 법령을 위반하고 수묘인을 판자는 형벌에 처하며 이를 산자는 수묘인으로 만든다.》는것을 비문에 밝히기까지 하였다.

수묘인들이 무엇을 매매로 하여 매매되었던가 하는것은 밝혀있지 않으나 노비들이 화폐로 매매되던 당시의 조건에서 수묘인들도 화폐에 의하여 매매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처럼 고구려에서는 동으로 주조한 화폐가 일찍부터 교환수단으로 적지 않게 류통되고 동시에 금, 은도 류통수단으로 리용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화폐들도 적지 않게 흘러들어와 축재수단 또는 류통수단으로 리용되었다.

다양한 금속화폐의 류통은 고구려에서 상업발전을 다그치게 한 하나의 요인으로 되었다.

고구려에서의 상업발전은 나라의 위력을 튼튼히 하며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긍정적역할을 하였다.

실마리어 고구려, 화폐류통